

⊗응용논문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

기 제 석\*  
Ki, Jae Seug

### Abstract

An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ducers and consumers to keep the reasonable prices. In these days, the main policy for the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s to enlarge the direct transaction market. But it is not easy to enlarge the direct transaction market in a few years.

This paper proposes a new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that gives a similar effect with the direct market. The proposed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three associations; producers', consumers' and retailers' association, 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is divided into material affairs and commercial affair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lso can be simplified as two to three steps. So the system can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and keep the reasonable prices for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 1. 서론

농산물 유통절차와 유통마진을 들여다 보면 마치 복마전과 같다. 생산지에서 포기당 370원인 고랭지 배추가 수집상과 도매시장 판매상을 거쳐 소비자 손에 건너질 때는 2,000원으로 가격이 무려 6배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무와 양파 등도 다를 것이 없다. 보통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16~21% 수준에 그친다[1].

생산지에서 헐값인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 앞에서는 금값이 되는 이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인과 소비자는 항상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

생산자도 제값을 받고 소비자도 보다 싼 값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차례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유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공영 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만 주력하다 보니 급격한 유통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4,7,9].

그 결과 '고비용 저효율' 이 농산물 유통체계 전반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98년도)에도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 삼척산업대학교 산업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보다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물류와 상류를 분류하여 유통효율을 높이며 유통구조를 보다 다양화하여 유통주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유통구조는 이상적인 유통구조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 현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이다. 이 유통구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중매인 또는 소매상 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2. 기존의 유통체계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메뉴였고 실제로 유통개혁은 농정의 중심이다. '94 ~ '97년간 2조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해 투자해 왔다. 그럼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개선효과는 없었다. 농산물의 전형적인 유통흐름은 생산자→출하업자→도매업자→중도매인→중간상→소매상→소비자로 연결되면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단순히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1].

농산물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통비용이 56.5를 차지한다. 포장, 수송, 하역 그리고 上場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직접비용은 전체 유통마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임대료와 간접비 그리고 이윤 등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수집상, 소매상 등 많은 유통 종사자들이 모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 종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1].

5~6단계로 꼬인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농산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부패·변질되기 쉽다. 그리고 같은 품종이라도 생산량과 품질도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다수의 농사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수집 분산단계가 필수적이다. 농산물은 연도별 계절적 등락이 심한데 반해 소비는 연중 고르게 이어져 수급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특성으로 인해 유통경로가 여러 단계가 되고 중간상인이 많이 참여하게 돼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하며, 제외된 유통단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선별 포장 가공을 위한 생산지 유통시설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매시장, 물류센터, 공판장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다행히 90년대 들어 산지 유통시설, 도매시설 투자, 공영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고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미 구축됐거나 진행중인 인프라 시설확충에 적합하게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이들이 더 이상 농산물 유통의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산물 유통개혁의 역점과제로 농산물 직거래 등 '직거래 기반확충'이 추진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98년 3월에 농림부 주관으로 농산물 유통개혁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 유통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는 주요계획은 그림 1과 같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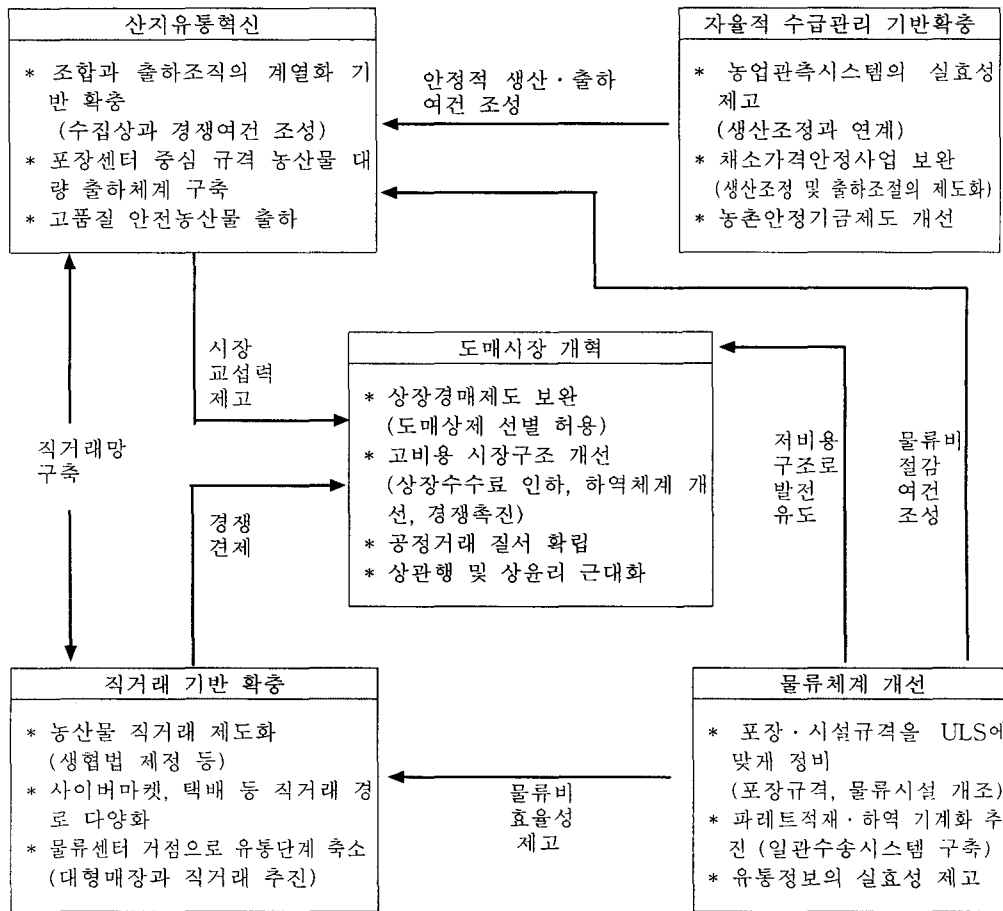


그림 1. 98년도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지금까지의 유통개혁이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만 주력한 반면 이번 유통개혁에서는 물류체계의 개선 등 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유통상의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총체적인 개념보다는 부분적인 능률향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物流와 商流가 혼재되어 있어 유통경비를 줄이는데 제한적이며 둘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생산자와 유통업자간 그리고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공유[2,3,5]가 없어 유통주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부분적인 성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개혁 위원회의 유통개혁 추진방향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한다. 즉, 商流와 物流를 분리하여 유통비용을 총체적인 개념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직거래 등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중간 유통업자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여 유통주체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시하여 직거래 장터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 3. 유통구조 개선안

98년도 유통개혁 추진방향은 산지유통의 효율증대, 수급관리 능력증대,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 직거래 확대와 도매시장 개혁이 주골격이다. 모두 고비용 저효율의 현 농산물 유통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5~6단계의 꼬여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직거래 확대가 유일한 방안이 되고 있다.

직거래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생활여건상 직거래 장터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한계가 있다.

전체 농산물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초에 5%에서 98년도 5월 기준 11%로 증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 조직, 대형유통업체, 실수요업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그리고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어 오는 2001년이면 직거래 비중이 2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물량이 50%는 넘어야 바람직하다. 직거래 물량이 50%를 넘으려면 긴시간이 필요하며 그사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직거래 물량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통흐름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거래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소매상들이 일정 지역별로 소매인 조합을 구성하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흐름을 제안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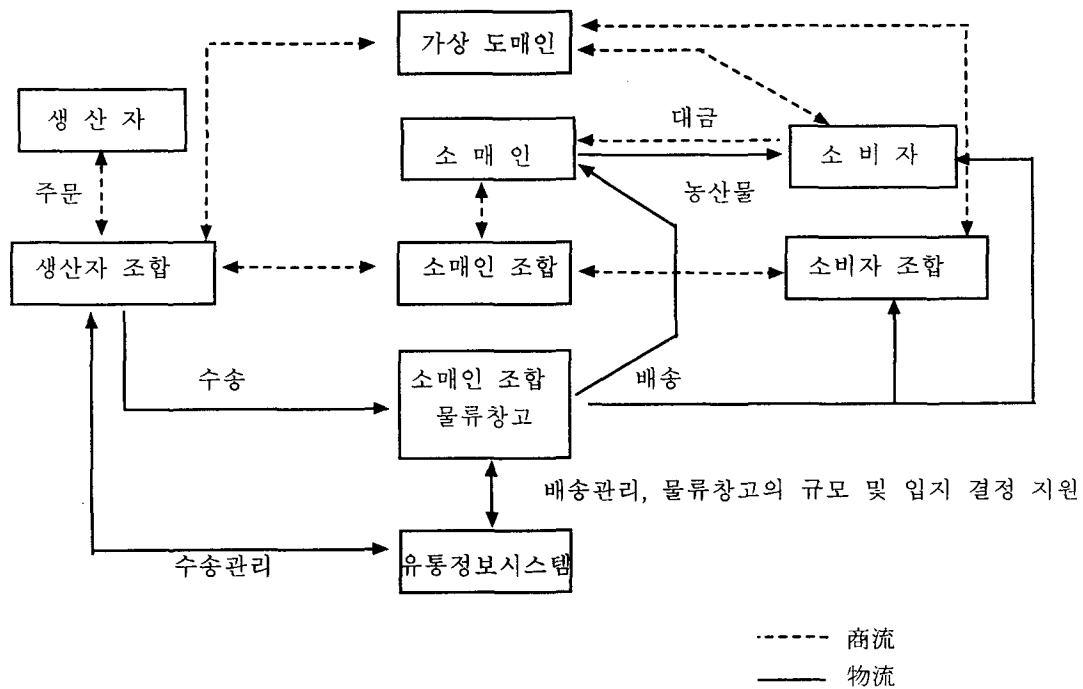


그림 2. 제안하는 유통구조 개선안

제안하는 유통구조 개선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통흐름이 있다. 첫번째 흐름은 '각 소매인이 소매인 조합에 주문' → '소매인 조합에서 각 주문을 통합하여 생산자 조합에 일괄주문' → '생산자 조합에서 각 소매인 조합의 주문량을 분류하여 해당 소매인 물류창고에 수송' → '물류창고에서 각 소매인에게 주문량을 배송' → '소비자'에게 이르는 흐름이다.

두 번째 흐름은 '각 소비자 조합이 소매인 조합에 주문' → '소매인 조합에서 각 주문을 통합하여 생산자 조합에 일괄 주문' → '생산자 조합에서 각 해당 소매인 물류창고에 수송' → '물류창고에서 각 소비자 조합에 배송'에 이르는 흐름이다.

세 번째 흐름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 조합이 가상 소매인에 주문' → '생산자 조합에서 해당 소매인 물류창고에 수송' → '물류창고에서 각 소비자 또는 소비자 조합에 배송'에 이르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가상 소매인은 사이버 공간의 판매인으로 예를 들면 SOHO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유통흐름과 달리 주문량이 바로 생산자 조합에 전달되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 생산자 정보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유통구조에서 소매인 조합 물류창고는 직거래 장터의 물류창고 등 기존의 물류창고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며 수배송의 합리화와 물류창고의 입지 및 규모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유통정보 시스템은 운송회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재율을 높이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양을 수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에서 제안하는 유통구조 개선안의 흐름은 상류(점선)와 물류(실선)로 나누어져 있다. 즉, 유통흐름을 상류와 물류기능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산물 물류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용이해진다. 또한 상품의 유통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직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중간상인과 소매인들의 피해가 커져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통구조에서는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소매인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직거래 판매와 경쟁력을 갖게 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인 등 중간단계의 유통업자들은 운송만을 담당하는 쪽으로 사업을 바꾼다면 많은 중간 유통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 조합, 소매인 조합 그리고 소비자 조합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엮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농림부와 농협 등의 지원과 지도·관리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3,6,8].

#### 4. 결 론

현 농산물 유통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유통흐름이 5~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안으로 직거래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직거래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물류 인프라의 구축과 자금이 소요되며 2001년이 되어서야 직거래 비중이 25%이상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직거래 물량이 50%는 넘어야 바람직하다. 직거래 물량이 50%를 넘으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그 때까지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직거래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개선안에서는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소매자 모두가 조합을 구성한 조합단위의 농산물 유통으로 유통흐름을 2~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여 유통흐름을 단순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거래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둘째, 조합의 기능을 商流와 物流로 분리하여 물류 전문화를 통한 물류합리화를 추구하였다. 물류전문화는 수급조절 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물류비용의 절감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유통구조의 단순화와 직거래 확대로 소외되기 쉬운 소매인과 중매인 등을 유통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소매인의 조합구성과 이들 조합간의 효율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 농산물 유통기관의 지원과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형구, “농산물 유통개혁”, 매일경제, 1998년 6월 22일
- [2] 공주대학교,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1994
- [3] 권원달,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협의 역할”, 충북대 지역개발연구소, pp.69-95, 1994
- [4] 농림부, “세부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 농림부, 1997
- [5] 삼성경제연구소, “농산물 유통정보관리 실태 및 개선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5
- [6] 서정민, “농산물 유통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충남대 학위논문(석사), 1995
- [7] 송인정, “농산물 유통체계 합리화 방안”, 경북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6
- [8] 전경수,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 경상대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5, pp.19-24, 1994
- [9] 주우진, 조규식,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에 관한 연구 : 농산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1, 2, pp.173-198, 1996